

## 건축법 · 시행령 개정

### 용도변경시 허가대상 건축물 명문화

구랍 13일 건축법 개정법률이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또 구랍 26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3월경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건축법은 지난해 5월말 위헌판결이 내려진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법 제14조의 규정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허가를 받도록 이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벌칙규정을 명시하는 한편, 현재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건축법 제 26조 및 제72조의 규정도 적용범위와 위임내용 등을 명시해 보완했다.

또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도시 주거지역에서 60평(2백㎡) 이상의 공장을 지으려면 도로와 인근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를 떼어 짓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150평(500㎡) 이상에 대해서만 이 제한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용도변경시 바닥면적이 1백㎡ 이하이거나 종전용도로 재변경할 경우엔 허가절차 없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음은 개정된 건축법의 주요내용이다.

-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건축물을 명문화하고 이 경우 준용해야 할 법률의 규정을 명시함(법 제 14조).
- 건축물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가 지켜야 할

대지의 안전, 구조, 설비 등의 기준을 구체화 함(법 제26조).

- 옹벽 등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작물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의 규정을 명시함(법 제72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벌칙 적용규정을 명확히 함(법 제78조 및 제 79조).

## 건축사도 연간 4차례

### 부가세신고 의무화

#### 개정 세법 임시국회 통과, 확정후 올해부터 시행 예정

정부는 건축사를 포함해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에 대해 부가세신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최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자금지원 이행 합의에 따른 세수부족 충당방안의 하나로 그동안 부가세신고대상에서 제외시켜 온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에따라 개정세법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그동안 매년 한차례 종합소득신고만을 해온 건축사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은 올해부터 4차례 부가세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사의 설계·감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98년 2월 개정세법이 임시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므로 현재로서는 정확한 시행시기가 미정이며 새로운 세법적용시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일정기간의 경과규정이 두어질 가능성도 있다.

## 제16회 서울시건축상

### 작품 공모

#### 96~97년도 市관내 사용승인(예정) 건축물 대상

서울시가 도시미관 증진과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실시하는 「제16회 서울시건축상」의 작품공모 요강이 발표되었다. 경향신문사와 서울방송이 후원하는 이번 서울시건축상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두 부문에 걸쳐 96년도부터 97년도 사이에 사용승인(예정)된 관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작품은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건축지도과에서 접수하며 응모원서와 90cm×90cm패널 2개, 작품사진 20매, 작품설계설명서 20부를 제출하면 된다.

부문별 금상 수상자에게는 각 5백만원, 은상 2점에는 각 3백만원, 동상 3점에 각 2백만원, 장려상 4점에 각 1백만원씩의 상금이 주어지며 또한 서울시조례에 따라 건축사행정처분 경감의 특전이 주어진다. 특히 금상 수상자의 경우는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 '98 포스코 강구조작품상

### 공모요강 발표

#### 96~97년 준공 국내 강구조물 대상

한국강구조학회가 주관하고 포항제철이 후원하는 '98강구조작품상의 공모요강이 발표되었다. 강구조기술의 창의력 배양과 우수 강구조물건설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시행되는 이번 작품상 공모는 96년 1월부터 97년 12월 기간중 준공돼 사용중인 강구조물(교량, 철탑, 해양구조물, 고층건물, 주택, 특수건축물, 플랜트

등)작품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설계자나 시공자, 건축주, 발주기관 등이 응모 신청할 수 있다. 금상 1점과 은상 2점, 동상 3점 등 각 수상작에 대해서는 설계자의 경우 상패와 부상(해외여행 특전 등)이, 시공자와 건축주에게는 동판이 수여된다.

응모자는 오는 2월말까지 출품규정에 따른 작품집을 한국강구조학회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 한국강구조학회 사무국(02-569-7636)

## 인덕전문대 건축과, 심화교육과정 개설

건축분야 산업체경력자 대상 1년 교육과정

인덕전문대 건축과에서는 98년도 1학기부터 산업체경력자를 대상으로 「심화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지원자격은 전문대 건축학과 졸업 또는 대학2년과정 수료후 1년이상 동일분야 산업체에 종사한 경력자로 교육기간은 1년이다. 이번 심화교육과정은 20명 단위의 2개 스튜디오로 운영되는 설계과목을 비롯해 현대건축론, 법규 및 설계실무, 건축표현과 컴퓨터 등 실무위주의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다. 각 과목별 담당교수는 ▶설계 / 정종영(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David Pierre Jalicon(프랑스 Jalicon Associate 대표) ▶현대건축론 / 배대승(프랑스건축사, 인덕전문대 교수) ▶건축표현과 컴퓨터 / 송춘동(주. 건캐드 부사장) ▶건물엔지니어링 / 정우택(기술사, 마성건설대표) ▶법규와 설계실무 / 이종정(아튼건축 대표) ▶구조특론 / 임용상(기술사, 태성건축사사무소 대표) 등 7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수업을 맡는다.

교육희망자는 전문대 졸업증명서 또는

대학2년 수료증명서, 최근 1년이상 산업체근무 경력증명서, 이력서 각 1부씩을 1월 12일부터 16일사이에 인덕전문대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인덕전문대측은 이번 심화과정을 98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나 교육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의 : 인덕전문대 건축과 (02-901-7590)

## 한길회, 창립30주년 학술 세미나 및 출판기념회 개최

한양대 동문건축가들 한자리에

한양대학교 동문건축가들의 모임인「한길회」(회장 윤석우)가 창립일을 맞아 구랍 16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창립3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1부 학술세미나에 이어 2부에선 이 모임의 창립 30년 발자취를 담은 「한길30년」이란 제명의 기념책자 발간을 축하하는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이번에 기념책자로 발간된 「한길30년」은 지난 1967년부터 이후 30년간의 한길회 회원 활동상과 건축·문화계의 사건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연대별로 한양대 건축공학부의 연혁과 활동, 사건 등이 정리돼 있다. 이 책자에는 또 회원작품 30여점을 비롯해 좌담과 논문, 칼럼, 기행문 등도 수록돼 있어 건축사료로서의 가치를 함께 지니고 있다.

한편, 이날 '한국건축의 국지성과 총체성'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에서는 건축가 류춘수씨와 김병윤, 정진국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건축가 방철린씨 사회로 건축가 유건, 장림중 교수 등이 참여한 토론회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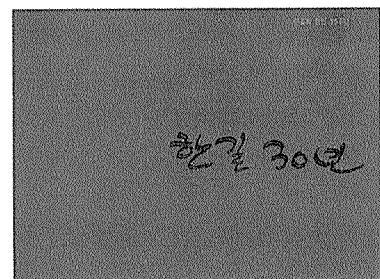
특히 이날 류춘수씨는 '나의 건축의 한국성 그리고 세계성'이란 주제발표에서「사머니즘과 유·불·선 그리고 서구의 사

상을 수용하여 공존과 융화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한국성의 본질이며 이것이 곧 자기의 작품세계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밝히면서 「서양적 논리에 의해 세분화된 논리들이 통합될 때 개성과 지역성은 세계성을 확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한국적 지역주의 건축의 가능성'에 대해 주제발표한 김병윤 교수는 「우리 건축이 지역성을 품기 위해서는 서구건축에 대한 차별과 차용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전통성을 내세워 지역성을 확보하려 하기보다는 총체적으로 이해된 문화가 내재된 내면적 사고를 바탕으로 과거와 미래를 연결지를 점진적 사고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모형으로서의 건축을 위한 기초사고」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 정진국 교수는 「지역의 문화에 대한 사고가 편협성의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보편성이 부각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건축은 하나의 개관적 문화의 모형 (Model)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하며, 구체보다 추상(Abstraction), 현상보다 존재(Ortology), 관념보다는 실제(Realism)를 중시하는 기초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교수는 또 「건축의 조직화로부터 시작해 시각화와 공간화, 형식화로 이어지는 절차를 재편하고 보편성을 확보하면서 국지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작음(Littleness)'을 개념화 하자」고 주장했다.



심포지엄 광경



한길회 창립 30주년 기념책자인 「한길30년」

## 목원대, 「도시건축연구센터」 건립

건축·도시분야 특성화대학에 선정돼

대전 목원대는 최근 문교부가 건축·도시공학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 최대규모인 「도시건축연구센터」를 건립키로 했다.

## 제20차 UIA총회 학술논문 공모

주제는 '21세기의 건축'

오는 1999년에 북경에서 개최되는 제20차 UIA총회에서 발표될 논문을 공모한다. 응모자격은 세계 각국의 건축가와 교수, 관계전문가로 아래의 제출요건을 갖춰 오는 1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 주 제

“21세기의 건축”

— 부 제

- 건축과 환경      • 건축과 문화
- 건축과 기술      • 건축과 도시
- 건축과 전문직업
- 건축교육과 청년건축가

— 참가대상

세계 각국의 건축가/교수/관계전문가

— 논문 제출요건

구 분	1차	2차
접 수	'97. 7. 1~'98. 1. 31	'98. 4. 1~9. 30
심 사	'98. 2. 1~3. 31	'98. 10월 (1차 합격자에 한함)
분 량	2,500자 이내	5,000자 이내
작성언어	영어	영어
첨 부 물	도면(A3), 사진(6~12인치 또는 135슬라이드)	도면/사진(없음)

— 특 전

-2차 심사에서 통과된 논문 작성자는 동 행사에 초청되며, 일부는 논문발표 예정임.

— 제출처

Treatise Group

Scientific Committee

The XXth UIA Congress Beijing 99  
c/o the ASC(Architectural Society of China)

9, Sanlihe Road, Beijing 100835, China

Fax : (0086-10) 68393428

Tel : (0086-10) 68393659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기획실  
(02-581-57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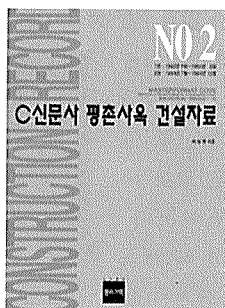
## 건축신간 안내

C신문사 평촌사옥 건설자료  
건설경영마인드  
스타디움  
작은 들쭉 같은 것일지라도  
알기 쉬운 생겨지풍수건축여행  
요약해설-건축제법규

◇ C신문사 평촌사옥 건설자료(1, 2권)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건축물이 탄생되는 과정을 현장일지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 나왔다.

이 책은 조선일보 평촌사옥의 설계와 시공·감리에 관해 건축월간지에 연재됐던 내용들을 필자인 원도시건축의 이한중씨가 사진·도면 등의 자료들을 보충해 단행본으로 펴낸 것이다. 필자는 현장에서 직접 상주감리를 하며 그날 그날의 현장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관련자료들을 빠짐없이 정리해 놓고 있다. 특히 본문내용중에는 현장작업지시서, 주간·월간 공사계획, 감리일지 등 각종 문서류와 함께 총 2천5백여컷이 넘는 현장사진과 150여 상세도면 등이 자료로 담겨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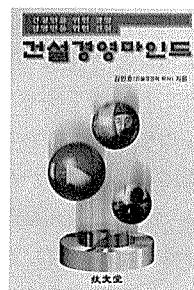


어 총 28개월간의 공사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책에 실린 모든 데이터는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생생한 자료들이다. 또 모든 자료들을 코드화해 각 공사내용과 순서를 찾아보기 쉽게 해 놓아 설계 실무자나 감리업무 종사자, 시공 관계자, 건축주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간접체험의 훌륭한 참고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중著/ 도서출판 좋은건축(02-237-0252~3) 펴냄 / 5×7배판 / 1권-300쪽, 2권-350쪽 / 1권 : 3만원, 2권 : 3만3천원

◇ 건설경영마인드

제조나 금융분야의 경영이론에 관한 책은 범람하고 있지만 건설업을 경영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체



계와 전략이 빈약한 실정에서, 날로 전문화 대형화 첨단화되어가는 건설분야의 경쟁력을 강화에 조언을 던져주는 건설경영 개론서가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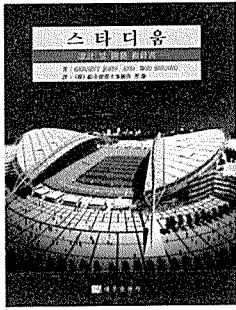
국내최초의 건설경영학 박사인 김인호씨가 쓴 이 책은 건설경영의 출발점, 건설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CM과 건설경영, 건설경영인의 미래전략 등 총4부로 구성돼 있다. 특히 마지막 제4부에서는 21세기 건설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갖춰야 할 건설경영인의 자질과 역할을 조명하고, 앞에 언급된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는 학문적 틀을 제시함으로써 건설경영을 위한 노력과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경험이 토대가 된 만큼 알기 쉽게 기술되어 있어 설득력을 더해 줄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도 한국건설업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근원과 대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김인호著/ 도서출판 기문당(02-295-6171~5) 펴냄 / 신국판, 반양장 / 306쪽 / 1만원

◇ 스타디움

이 책은 현대인의 생활속에서 친숙한 시설로 자리한 스타디움, 즉 대규모 운동경기장에 대한 설



계 및 개발지침서로 UIA스포츠/레저분과(IAKS)위원장이인 저자가 스타디움 전문건축가와 함께 공동 저술한 것이다. 특히 이 책은 스타디움의 개념이 스포츠 행사를 위한 단일목적의 시설에서 점차 각종 행사와 레저, 생활체육 등을 통해 복합화되고 활용도를 극대한 도시시설로 그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그에 적합한 설계조건 등 실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이책에는 스타디움에 관한 조사·연구기록에서부터 시설물설계의 상세한 지침사항 그리고 입지/교통/외부공간 조성, 구조/재료, 관중통제/시아조건, 관람좌석 등 단지 마스터플랜, 화장실을 포함한 각종 지원시설들의 계획조건과 방송 및 설비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 및 재활용,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스포츠시설 전반의 각종 자료와 설계조건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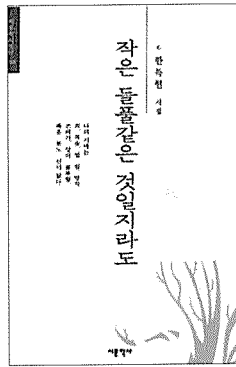
따라서 이 책은 스타디움을 비롯한 스포츠시설 전반의 설계실무 지침서로 뿐만 아니라 이분야 학술서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제랜트 존, 로드 웨어드著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 譯 / 대우출판사퍼냄 / 255쪽 / 3만원

◇ 한득현 시집 『작은 들꽃 같은 것일지라도』

지난 95년 「시문학」으로 등단해 시인으로도 활동중인 건축가 한득현씨의 시집이 나왔다. '사막에서 아내에게 쓰는 편지', '여뀌꽃' 등 이 시집에 실린 60여편의 생활시들은 시인으로서, 건축가로서의 예술적 감성과 따뜻한 인간미를 느끼

게 해준다. 특히, 설화적 소재들은 시집표제가 말해주듯 사랑의 눈으로 감싸 안고 보면 들꽃들도 꽃으로 보인다



저자의 인간적 감성과 본질적으로 인위를 싫어하는 예술가적 태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수채화처럼 배어든 삶의 원동력이 사랑임을 말하는 시어들은 어느새가 독자의 삶을 파고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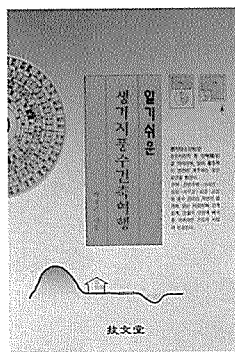
저자 한득현씨는 51년 전북 진안 태생으로 머물러 문학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해 오다 지난 95년 「시문학」을 통해 등단한 늦깎이 시인으로 현재 충남 당진에서 한성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득현著 / 시문학사(02-323-2227~8) 펴냄 / 120쪽 / 4천5백원

◇ 알기 쉬운 생거지풍수건축여행

풍수지리는 양택(陽宅)과 음택(陰宅)으로 나누어진다.

이 책 제목 '생거지(生居地)'는 살아 활동하는 인간이 거주



하는 공간을 말하며 이는 곧 양택을 의미한다. 이 책은 풍수지리중 양택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주택과 아파트 같은 주거를 목적으로 한 건축물 뿐만 아니라 사무용건물, 상업용도의 건물, 공장용도의 건물 등 모든 인간이 활동하는 공간을 그 범위에 두고 있다. 특히 이책에는 풍수지리학상으로 대지를 구하는 방법에서부터 주택설계를 하는 과정과 시공하는 과정 등이 순서대로 정리돼 있는 것은 물론, 어렵고 난해한 풍수지리상의

전문용어들을 일상용어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전체 5부중 1부는 풍수지리의 이론적인 설명과 기본적인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풍수로 본 주택설계에 관해, 3부는 아파트와 전원주택, 4부는 빌딩과 공장에 관해, 5부는 세간에 잘못 알려져 있는 풍수설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정리해 놓았다.

박상근著 / 도서출판 기문당(02-295-6171~5) 펴냄 / 신국판 / 272쪽 / 1만원

◇ 요약해설-건축제법규

건축법 외에 125개의 관계법규를 대폭 증보 수록한 98년도 개정판 법규해설집이 출간됐다. 이 해설집에는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건축사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15개 건축관련법들의 전문을 비롯, 국토이용관리법, 지적법 등 모두 125개 주요 관련법규를 자세한 해설과 함께 일목요연하게 요약 수록해 놓아 독자들이 법의 취지와 근본정신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방대한 건축법령의 내용과 관계 법령간에 관계되는 조항을 체계적으로 요약하여 바로 법의 내용이 파악되도록 연계 해설해 놓은 것은 물론, 요약내용마다 관련법령의 조항을 표시해 법령의 본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개정판은 실무자들을 위해 관련법규를 충분히 수록하여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외에 주요 질의·회신란을 두어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동찬著 / 도서출판 기문당(02-295-6171~5) 펴냄 / 1,998쪽 / 5만원

■ 고칩니다

지난호(97년 12월호/통권 344호) 「협회소식」란에 게재된 전북건축사회 총회관련 기사 내용중 오자가 있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칩니다.

〈P.98〉

간사:고기성→감사:고기성